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멈추라

1999 년 7 월 20 일, 중공은 파룬궁을 탄압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9 년동안 줄곧 파룬궁을 잔인하게 박해했다. 파룬궁학원 3 천여명을 비참히 살해했고 수십만명을 감옥,로교소,세뇌반에 갇두어넣고 갖은 혹형을 감행했으며 심지어 수천수만명의 파룬궁학원의 생체에서 심장, 간장, 신장, 안막 등 장기를 적출하여 외국에 고가로 팔아 폭리를 얻고 있다. 금년 북경올림픽을 맞아 중공은 《사회안정을 수호한다.》는 구실로 파룬궁을 더욱 창궐하게 박해하고 있다. 금년 7 월 10 일 하루만 하더라도 연변 왕청현 파룬궁학원 염채하(閻彩霞), 등 20 여명을 랍치하여 박해하고 있다. 이리하여 중공의 하늘에 사무치는 범죄행위는 국제사회의 견책과 반대를 받고 있다.

중공두목이었던 강택민은 《3 개월내에 파룬궁을 소멸하

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질렀지만 9 년이 지난 오늘 파룬궁은 의연히 장대해졌다. 지금 파룬궁은 전세계 80 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1 억을 넘는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으며 전세계 각국 정부와 의원단체에서 리홍지선생님과 파룬궁을 3 천여차례나 표창했다. 중공의 피비린 박해속에서도 파룬궁은 갓 솟아오른 태양마냥 어지러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인류도덕의 새 꽃을 피웠고 파룬궁학원들이 “찐싼런”에 대한 신앙과 사람을 구하는 숙망은 더욱 견정해졌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중공은 제아무리 발악해도 죽어가는 운명을 만구할수 없으며 오래지 않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파룬궁박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빨리 각성하여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기 바란다.

전세계 각지에서 반박해집회를 열어

“7.20”탄압 9 주년에 즈음하여 미국, 대만,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러시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의 파룬궁학원들이 집회를 열고 중공이 중국인민 특히 파룬궁학원에 대한 박해를 견책했다.



윗사진은 금년 7 월 20 일, 1 천여명 파룬궁학원과 각계 정의인사들이 대만 고웅시명성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견책하고 있다.

세계각지 파룬궁학원들이 촛불추모활동을 거행

“7.20”박해 9 주년에 즈음하여 세계각지 파룬궁학원들이 촛불을 들고 9 년동안 중공의 박해에 사망된 3 천여명 동수들을 추모했다.



미국 뉴욕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영국 런던에서

죄 없는 “죄인”

2008년 7월 30일 오후 2시 30분, 산둥성제녕시중구법원에서 개정하여 파룬궁학원이며 탁월한 예술가인 주녕(周宁)을 심판했다.

검찰원기소원은 주녕에게 “사교와 사교내용이 선전품을 전파했음으로 사교를 리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가 구성된다.”는 터문이 없는 죄명을 뒤집어씌웠다. 주녕은 검찰원기소인에게 “내가 법률실시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법률조례를 위반했으며 내가 전파한 사교와 사교내용을 공포할수 있는가? 공개할수 있는가?”고 다잡아 물었다. 모든 기소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리소빈(李苏滨) 등 3명 변호사는 용약 출정하여 《헌법에 비추어 보면 파룬궁을 신앙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변호했다. 리소빈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파룬궁내용의 자료를 보거나 배포하는 것은 헌법이 부유한 권리이며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파룬궁을 사교라고 한 것은 몇년전에 지도자들의 강화와 인민일보 평론문장이었는데 죄다 법이 아니다. 때문에 근거로 삼을수 없으며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죄명을 날조하여 판결할수 없다.》고 변호했다.



행패를 부린 악경들

6월 17일 하북성 형대시 교동(桥东) 공안분국 국보대대가 올림픽을 구실로 파룬궁수련생 풍조(冯朝)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노트북, 프린터, 핸드폰 및 방세로 준비한 16만 5천원의 현금을 약탈했다. 그녀가 제때에 탈출하게 되자 악경들은 화가 나서 그녀의 70대 로모와 모친을 보러 온 동생 풍개(冯凯)、미성년인 두 딸 왕휘(王晖)、왕동(王彤)、남편인 왕군년(王军年) 및 그날 그녀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랍치했다.



폭로

연변박해소식

■ 지난 7월 24일 오전, 화룡시 8가자림업국 파룬궁학원 장계금(张桂琴)은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집수색을 당했다. 그는 지금 화룡시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7월 24일 저녁 6시에 왕청현 파룬궁학원 장수균(张树钧), 오영자(吴英子), 풍패근(冯佩芹), 류국신(刘国新)이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1억 2천만년전의 신기한 돌

2006년 6월, “진리보”소식에 따르면 러시아 바스크성 국립대학 물리학 교수이며 저명한 과학자 알렉산드르-츠위노브 박사와 탐험대원들은 1999년 7월 28일 우크라이나산맥에서 길이 1.5미터, 너비 1미터, 두께 16센티미터, 중량 1톤이 넘는 신기한 돌을 파냈다. 과학자들이 검증한데 의하면이 돌은 도합 3층으로 나누어졌는데 특소한 접착제로 붙혔고 돌판에 새겨져있는 3위립체지도는 1.2억년전에 고대석공이 손으로 조아 만든 것이 아니라 선진적이고도 정밀한 기계로 쪼아 만든 것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지도에 너비 500미터, 길이 1.2만킬로미터인 넓고도 긴 강이 있는데 거기에 너비 300미터 길이 10킬로미터 깊이 2킬로미터인 큰 댐이 30개나 세워 놓았다. 이 댐의 규모는 현대 수력발전소와 같다.

악보 받은 일가

산둥성 유산육리진에 한 촌민이 살고 있었다. 1958년, “4가지 낫은 것”을 타파할때 그는 절의 부처석상을 부스어 길가에 던져놓고 그 위로 뛰어넘기도 하고 심지어 오줌까지 썼다. 그의 안해가 임신해서 얼마 안되어 아들이 죽었다. 안해가 아들을 낳았는데 눈은 멀었고 손가락이 6개였다. 게다가 향문과 뇨도가 메여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다. 후에 안해는 딸을 낳고 인츰 죽었다.

평안무사한 조손 3대

사천성 면족시 한왕진 천지향은 이번 사천지진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한 촌민의 조손 3대는 평안무사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점심식사를 하다가 손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얼른 밥술을 놓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며느리가 손자를 업고 놀러 간 일이 문득 생각나서 되돌아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강렬한 지진이 일어나 순식간에 집이 무너져 재더미가 되었다. 갱내에서 일하던 아들과 한 한왕진에서 공부하던 외손자, 외손녀는 죄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조손 3대가 평안무사할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한 친척으로부터 “퇴당, 퇴단, 퇴대하면 재앙을 면하고 생명을 확보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슴없이 “3퇴”했던 것이다.

